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제1독서: 사도 1, 1-11

제2독서: 에페 1, 17-23

복 음: 루가 24, 46-53

순정이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사도 1, 9)



희망찬 내일을 위해!



김 원 중 신부/사목국 부국장

오늘은 교회가 정한 제32차 홍보주일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2000년 대회년 준비의 둘째 해인 '성령의 해'입니다. 이에 보조를 맞춘 듯,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홍보주일 담화의 제목은 '성령에 힘입어 희망을 나눌시다'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희망은 하느님 나라를 위한 종말론적인 희망인 동시에, 더 나아가 현재의 삶에서의 행복과 완성에 대한 희망입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지금 여기, 우리가 머무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행복 찾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고별 당부를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협조자,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役事)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환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19-20) 바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르치도록 우리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성령께 힘을 얻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느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 전부를 바치시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달려드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최고로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one shot!!!).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순 무식하게(아무 생각없이) 무작정 달려드셨던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느님의 계획(뜻)에 따랐고,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잘 아셨으며,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남김없이 모두 이루십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요한 19, 30).



우리의 홍보, 선교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성령께 힘을 얻어 시의적절하게, 또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끌어들이야 합니다. 교회의 홍보 즉, 선교는 방법론을 따지자면 끝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실 안에서 효과적으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온 교회는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온몸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 관심 또한 소홀해서도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특성에 맞는 선교, 홍보의 방법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우리의 발걸음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머지않아 많은 이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희망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과 오뚝이 정신

이 덕 자(안젤라)

신록의 5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싱그러운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 때에 정반대의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가족동반자살, 자녀의 자살, 부모의 가출로 인한 편부모가정의 급증, 자녀유기 등 가정 파탄 현상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와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된다. 왜 이런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정치·사회·경제적인 원인으로 클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추구했던 것, 즉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나는 친구를 따라 스키를 배우러 간 적이 있다. 앞으로 가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우고 산 위로 올라갔는데 리프트에서 내리자마자 넘어지기 시작했다. 비탈진 곳에서 몸의 중심을 잡고 일어서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때서야 앞으로 가는 방법을 배우는 일보다 넘어지는 방법과 일어서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더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잘 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수도 없이 넘어져야 했다. 그후 나는 목부분에 이상이 생겨 몇 주 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다. 넘어지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던 대가였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하면 된다'는 식의 성장논리, 발전논리에 얽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급급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고,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내달리는 법만을 주로 가르쳐왔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나 아이나 어려움이 닦쳤을 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 잘 달리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소홀히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큰 병폐로 자리잡게 되었다. 요즈음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가정

이 깨지는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위기를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 과거 우리가 지녔던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들에 대해 점검해보자. 먼저 옆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그것도 고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전후좌우도 살피면서 천천히,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는 법도 배우면서, 그래야만 나중에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일러주자.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힘을 키우는 일이 성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자.

경제난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어려울수록 더 뚝뚝 뭉쳐 서로를 위로하고 도우면서 이겨나가야 한다. 이 시대 어른들이 어려움을 딛고 가정과 나라를 굳건히 지켜내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본받을 것이다. 달리다 넘어졌을 때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한다.

전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여성연합회, 행복한 가정운동 공동주관으로 생명의 중요성과 낙태방지를 위하여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코아백화점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입니다. 아기손바닥, 아기발뺨지를 달아 드립니다.

숲정이 산책



“축! 예수 승천”

주님이 계시기에

봉사에는 안식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성당의 사목회장을 역임하고, 성전건립위원장 그리고 애령회장직을 맡아 늘 고되고 새로운 봉사의 삶을 살면서도 지칠줄 모르는 엄익도(시몬 60세) 형제를 찾아가 보았다.

언제부터 효자우전성당엘 나가셨습니까?

원래 중앙성당 소속이었는데 사목회장직을 맡아하다가 7년전 이쪽으로 병원을 옮기면서 교적도 바뀌게 되었죠. 91년 12월에 이사와서 2년 후에 사목회장을 맡았고 이어서 성전 신축위원장직을 맡아 성전건립에 함께 했습니다.

사목회장 재임시에 교구에서 제일 규모가 큰 성당 건축에 참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집한채 짓고 나면 금실좋은 부부도 이혼단계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요. 서로 의견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자금을 마련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전건립추진 위원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성전축성식때 주교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답을 받았습시다만, 드러나지 않는 많은 신자분들께서 계속되는 성전건립기금 요청에 성의껏 응해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 쏟아 주시지 않았다면 이 크고 아름다운 성전 건립이 불가능 했지요. 아직 갚을 빚이 남아 있지만 정말 신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 계시던 중앙성당에서도 사목회장으로 봉사하셨는데 특별히 봉사직의 소명에 대한 의식을 깊이시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원래 구교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에 밴 신앙심이 저를 부추겨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누구라도 그 일을 맡아야 할 때 저에게 주어졌기에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86년쯤, 저의 막내가 큰 병에 걸렸었는데 조지 아일린여사가 이끄는 성령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치유의 은사를 받았습시다. 그때 그 일이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응답하리라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습시다.



사목회장 임기를 마치고 계속해서 애령회장으로 새롭게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전건립을 마치고 나니 너무도 힘이 들어서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의 치유를 경험한 후 하느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했지요. 그리고 평소에도 진정한 봉사는 애령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번에 다시 교회일을 맡았습니다. 새로 지은 저희 성당은 장의실, 부속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여 시신을 다루고 연도를 하는 것만으로 알려진 애령봉사를 좀 더 체계적인 모습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본당의 모든 일에 있어 최종결정은 신부님이 하시지만 본당 운영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사목회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회안에서 평신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기고 제32차 홍보주일을 맞이하여

자유 언론

어느 날, 신문이 배달되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도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며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도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등 매스 미디어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정보 결핍으로 혼란이 일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답답하기 이를데 없을 것이다. 그만큼 매스 미디어가 우리 생활안에 깊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과 방송(라디오, 텔레비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이들 신문과 방송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정하고 올바른 비판을 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정보다. 독자가 읽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싶어 하는 정보가 되어야 한다. 글장난과 말장난으로 눈과 귀만 즐겁게 하는 정보라면 가치가 없다. 텔레비전 범죄처리 프로를 보고 오토바이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 중학생을 납치하여 목졸라 죽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매스 미디어가 모방 범죄의 길잡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종이나 미담이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다가 엉터리 보도를 하여 망신을 당해서도 안된다. 이런 것들이 언론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국언론은 60년대 이후 거의 10년을 주기로 팔다리가 잘리는 시련을 겪었다. 언론 스스로 족쇄를 차는 '자율정화'조치도 서슴치 않았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면서 '관제언론' '제도언론' '출세지향집단'이라는 비난도 감수했다. 그러다가 '자유언론시대' '개방언론시대'를 맞았다. 이제 독자와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토머스 제퍼

슨 대통령은 '신문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없는 신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제42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말을 인용해 자신의 언론관을 밝히고 국민과의 TV대화에서도 "언론에 나온 비판에 가장 크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언론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언론이 있다. 그러나 정의를 추구하고 올바른 비판이 없다면 '제도언론'일 뿐이다. 언론은 강직하고 정의로와야 한다. 기자는 불의에 꺾여서도 안된다.

중국춘추시대 제(齊)나라 대부(大夫) 최저(崔杼)가 군주 장공(莊公)을 시해(弑害)하고 그의 동생 경공(景公)을 임금으로 앉혔다. 자신은 스스로 대신(大臣)이 되어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러자 조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太史)가 이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다. 최저가 이를 알고 태사를 죽이고 기록을 말살했다. 당시 태사는 세습으로 이어지는 가업이어서 동생이 형의 직위를 이어 받았는데 그 또한 사실대로 기록하고 죽임을 당했다. 또 하나의 동생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세 형제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최저에게 저항, 그의 비행을 역사에 고발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한 것이다. 결국 최저는 기록말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조 사관(士官)들도 울금음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는 사례가 허다 했다. 연산군 4년에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士禍)도 그중 하나다. 성리학자 김종직(金宗直)이 조카 단종(端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世祖)를 어린 의제(義帝)를 죽인 항우(項羽)에 비유하여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비난하였다. 사관으로 있던 그의 제자 김일손(金駟孫)이

편안 눈 밝은 세상 —

정음 한독 안경원

안경사 이 수 엽(필레몬)
박 은 숙(레지나)

우체국 정문앞 이안과 1층
☎ (0681) 538-3333

위니아 에어컨

18%~10% 할인 무이자 6개월
김치생장고 위니아닷컴,
공기청정기, 제습기
위니아 정유점(대전신협 사거리)
☎ (0681) 535-5510, 080-500-0200
(0652) 224-7080
번호 석(루도비코)
박 유 덕(루 시 아)

미래에 살버티온(유무상통이음)
신청 접수중

성지순례경 공사현장 답사 견해서
꼭 찾아주십시오.
주관 : 도척성당 설립의 사회복지
법인 방상복 신부
문의 : (0347) 64-9753
(0334) 73-6145

강 서 약 수

장기환자, 암, 변비, 속변,
고혈압, 당뇨, 간독, 술독

방 양 군(리노)

택배료 본사부담
017-321-8005

대

모 보 일(즈가리아)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올리기 위해 자신의 사초에 기록한 것을 반대파가 발견하여 불충한 행위라며 폭군 연산군을 부추겨 옥사를 일으켰다.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고 김일손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은 귀양을 가거나 처형을 당했다. 시대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옛 사관과 태사의 기가 지금의 언론에게도 귀감이 되지 않을까. IMF시대, 귀가 많도록 들어온 신임도를 높이는 길일 것이다.

전북대신문사가 최근 학생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언론을 믿을 수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1.3%나 됐다고 하지 않는가. 신뢰감 회복을 위한 언론의 분발을 촉구한다.

◆ 궁금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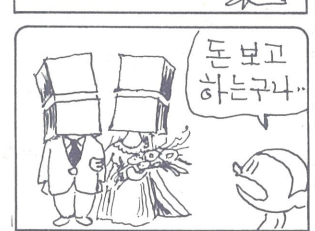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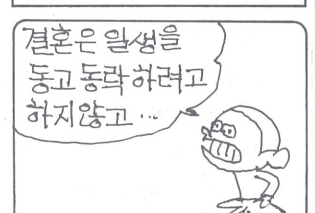
개신교에 다니는 친구가 '천주교에서는 왜 인간이 마리아를 믿느냐'면서
우상숭배이며 미신이라고 비판을 하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모님께 기도를 하는가요?

물론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께만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지요. 특히 전통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한 성인 성녀들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나를 위해,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시고 키워주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그분을 특별히 공경(믿는 것이 아님!)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 마리아는 직접 하느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모송 후반부를 볼까요.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되어 있지요. 이처럼 하느님께는 직접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성모님이나 다른 성인들에게는 나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해 달라(빌어주소서!!)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십이 (1294) 김병오

단오절 풍납제
사랑의 나눔잔치

5월 25일~31일
덕진종합경기장 안 야구장쪽
천주교회
☎ 232-5001~5

高品格 웨딩
메종 프랑세스

다이어트 50% Sale
웨딩드레스+턱시도=250,000원부터
이 지 연(테레사)
덕진광장앞
☎ (0652) 251-1210, 1211

전주문구센터
NEO DADA

1층 약세사리, 팬시
2층 학용품, 사무용품, 컴퓨터소모품
3층 화방용품, 제도, 측량전문용품
전북대앞 본점
원수만(아고보) · 심검이(마리아)
☎ 77-0079 FAX 77-0720

결혼상담소
좋은날

초혼, 재혼, 인연을 맺어드립니다
상담 : 유 춘 주(세라피나)
전동 시의버스터미널 옆
삼성전자 2층
☎ 87-3325, 88-3325

한국장식 · 지업사

고급벽지/바닥재/도소매 시공전문
이 진 우(베드로)
홍 춘 순(카타리나)
☎ (0652) 84-2982, 87-5568
(후) 011-681-1096
송악사거리↔풍납문(태화교무앞)

서울가정의원
의학과

치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 의 :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앞
☎ (0652) 75-0550~1



1998년 성령의 해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책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부님께서 교회에서 발행되는 좋은 책자를 신자들에게 권유하면서 이렇게 농담을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다. 우리 한국 신자들이 얼마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가도를 드릴 때 나의 지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나는 무엇을 바라며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신부님의 농담처럼 그저 병이 낫고, 시험에 붙고, 승신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목적을 잘못 설정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잘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인간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약인 것이다. 구약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세상의 복까지 다 받게 된 것은 그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기도지향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을 지녀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인가? 그래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대희년과 천년기를 맞이할 은총인가? 아니면 여전히 잘먹고 잘살기 위한……? 건전한 목적으로 나의 지향을 새롭게 하고 회년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참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아멘.

기쁘고 온정의 대희제 2000년 대희년행사 1년 7개월 7일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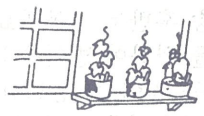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동차 살때는 작은 차, 탈때는 큰 자

자동차 1대가 1년동안 쏟아내는 배기가스는 평균 약 1톤이며 교통체증이 심한 곳에서는 최고 4배까지 증가합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3/1을 차지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은 인체에 영향을 미쳐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심각한 피부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 차를 살때는 소형차를 선택합시다.
- ▶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닙시다.
- ▶ 카풀(함께타기)을 습관화 합시다.
- ▶ 오래 주차하게될 경우에는 시동을 꺼서 연료소비와 배기가스 배출을 막읍시다.



서도프라자 확장이전
코아삼의피아노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연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십(하삼바오로)
Tel. 225-5252, Fax 223-5332

동보한의원 동부약국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동동 천주교회 옆
☎ 한의원 (0653) 52-4666
약 국 (0653) 841-7217

하안집 결혼옷가게
웨딩드레스, 턱시도 대여
웨딩앨범 제작, 출장부페, 신혼여행
강 덕 용(베르나르도)
서신동 세진컴퓨터 맞은편
☎ 254-3651, 244-9292

제일 학문 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 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믿음, 온유, 절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교구소식

- ❖전주교구 성령대회
 - 때 : 5월 2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효자우전 성당
- ❖레지오 단원교육
 - 때 : 5월 25일(월) 오후 7시
 - 장소 : 창인동 성당
- ❖사제 평의회
 - 때 : 5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은총의 날 일일 대피정
 - 때 : 5월 26일(화) 오전 8시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감사 : 오웅진 신부, 김정남 신부, 김동길 교수외
 - 주최 : 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02) 776-09074
- ❖성모기사회 야외미사
 - 때 : 6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나바위 성지
 - 준비물 : 미사도구, 목주, 점심

- 차량대기 : 한라관광 1, 2호차-효자성당, 3호차-덕진성당, 4호차-전동성당 (오전 9시 30분까지 승차하여 주십시오)
- ❖교구청 직원 및 본당 사무장(원) 피정(1차)
 - 때 : 5월 26일(화)~27일(수)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새사제 연수
 - 때 : 5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혼인강좌
 - 때 : 5월 31일(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 ❖은혜의 밤 철야기도
 - 때 : 5월 29일(금) 오후 11시
 - 장소 : 전동성당

- ❖성요셉 동산 양로원 축복식
 - 때 : 5월 30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경로수녀원 (0652) 243-1440
 - 주례 : 이병호 주교
-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때 : 6월 2일(화)
 - 주제 : 기도의 성장단계
 - 지도 : 김정수 신부
- ❖기억할 사제 5월 27일(수) 윤사물(보두네) 신부 83주기 가톨릭 신학원 전화번호 변경 (0652) 255-2677, 2678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동 정 성 모 회 (전주)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금 암 동 성 당 수 녀 원	(0652) 253-0325
동 정 성 모 회 (이리)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이 리 성 모 병 원	(0653) 841-0714
인 보 성 체 수 도 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중 노 송 동 본 원	(0652) 84-3231
바 오 로 딸 수 도 회	매월 첫째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52) 252-3398
살 레 시 오 여 자 수 도 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정 읍 연 지 동 성 당 수 녀 원	(0681) 33-2578
예 수 성 십 전 교 수 녀 회	매월 셋째주 오후 2시	삼 천 동 성 당 수 녀 원	(0652) 226-3487
부 산 성 베 네 디 크 도 수 녀 회	매월 넷째주 오후 2시	호 성 동 성 당 수 녀 원	(0652) 244-0094
살 트 르 성 바 오 로 수 녀 회	매월 둘째주 오후 2시	이 리 창 인 동 성 당 수 녀 원	(0653) 858-4724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6대째 이어온 독일 수제피아노 이바하 피아노 군산대리점

영창, 삼익 중고, 교회용 전자울렌
국가공인 1급 조율사 출장대기

장 주 한(안토니오)
마 은 선(아나다시아)

☎ (0654) 468-3221~1

기숙생 모집

대상 : 만 25세 이하의 직장 여성

곳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131-1

전화기숙사

운영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문의 : 863-7978, 854-0389

젊은이들을 위한 피정

대상 : 미혼여성

주제 : 주님의 기름 안으로 들어가기

일시 : 98. 6. 6(토) 오후 3시~

7(일) 오후 4시 참가비 : 1만원

장소 : 나주 글라넷 교육관

신청과 문의 : 6월 3일까지

(0652) 253-0325 금암동 성당수녀원

(042) 254-6530, 6531 동정성모회

L G 에 어 콘

12~22% 할인+6회 무이자
냉난방기기 상담환영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백제로 빙상 경기장 맞은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

동전주 주유소

〈품질좋은 쌍용〉

성실, 신용으로 시내 전지역 신속배달
소양, 진안 방면 초입
(우아동 파출소 옆)

황연옥(요셉) · 윤정자(수산나)

☎ (0652) 245-5123, 5134(오일상사)
(휴) 011-606-5134

고 려 보 석

금 · 은 · 시계 결혼 예물 전문
(목주반지 제작전문)

김 형 태(율리아노)

박 태 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천복은행 앞

☎ 82-9005

노송분재원 · 한길산악회

초화, 소나무, 소사나무, 잡목
(본재 감습도 합니다)

노 종 무(안토니오)

송 군 자(오틸리아)

소양초등학교 뒤

☎ (0652) 244-7045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심 성 택

○ 성모님의 가정을 본받읍시다!

1. 모임 : ① 청년회 - 저녁미사 후
② 성심부녀회 - 27일(수) 전 10시
③ 성령기도회 - 28일(목) 후 8시
④ 전례부, 홍보부, 테니스회 - 31일(주일) 교중미사 후
2. 축! 창립총회: 요셉회, 성모회 - 61세 이상의 남녀 신자
3. 중·고등부 체육대회: 서전주지구 체육대회, 해성중고 운동장
4. 유아 세례식: 26일(화) 저녁미사 후에
5. 참회예절 미사: 27일(목) 저녁미사중에
6. 병자 방문: 29일(금) 후 2시 진달래마을, 미사 - 4시 30분
7. 경로수녀원 축복식: 30일(토) 전 10시 30분
8. 로사리오 기도: 평일 저녁미사 후, 성모상앞에서
9. 성가집 운동: 매주 토요일에는 가정기도 요망
10. 조당자 면담: 혼인 및 기타 조당자 분당 신부께 면담 바람.
11. 고백성사: 미사 전후 20분씩 볼 수 있음.
12. 수녀님 휴가: 소화테라사 수녀님, 25일(월)~5일(금)까지
13. 특별 헌금: 금주 봉헌자 - 2명 8만
14. 금주 전례: 해설 - 김학덕, 독서 - 이계현(그레고리오) 부부
봉헌 - 이종현(프란치스코) 가정
15. 차주 전례: 해설 - 문승욱, 독서 - 임동주(안셀모) 부부
봉헌 - 이용범(요셉) 가정

□ 지난주 봉헌금: 1,651,560원 □ 교무금: 1,927,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태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준 용

○ 예비신자 배가운동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합시다!

- 주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및 꾸리아 옥외행사:
오늘(24일) 전 11시, 중산공원 * 많은 참석 바람.
1. 주간 모임: ① 월요일(월) - 25일(월) 전 10시, 성당에서 출발
② 엠마우스회 - 27일(수) 후 7시, 1회의실
 2. 차주 모임: 방주회, 청년공동체
 3. 축! 여성 61차 꾸리실로 수강: 21일(목)~24일(일)
임순옥(세실리아), 이아주(아가다), 유미경(아네스)
 4. 영세식: 31일(차주) 공식미사중 * 특별교리: 28일(목) - 저녁미사 후
29일(금) - 후 8시, 30일(토) - 후 8시(사목회원과 상견례 및 면접)
 5. 사무장 피정: 26일(화)~27일(수), 나바위 피정의 집
 6. 폐품수집: 신문지, 공책, 박스, 헌옷, 책 등 * 많은 협조바람.
 7. 전입가정 환영!: ① 오필순(헤레나) T. 72-3806, 신일A 102/1010
② 박순주(필로미나) T. 246-6574, 10구역 4번
③ 김운택(마티아) T. 72-3992, 비사벨A 107/1101
④ 박미경(엘리사벳) T. 253-0543, 성원A 103/805
 8. 부지헌금 2차신포 김사!: 정은순 10만, 박정호 10만, 누계 - 540만
 9. 독서: 금주(새벽) - 신국중, 김덕남, 차주 - 김병관, 박구자
(공식) - 김정수, 서영숙, 차주 - 김진순, 이자영
 10. 미사 안내: 금주 - 성조의 모후Pr., 차주 - 순교자의 모후Pr.
 11. 주차 안내: 금주 - 구세주의 모후Pr., 차주 - 정의의 거울Pr.

□ 지난주 봉헌금: 1,871,800원 □ 교무금: 2,237,0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박 기 준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환호소리 높음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1. 모임: ① 꾸리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② 요셉회, 사사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축! 혼배: 신랑 - 윤재준(요셉) 장남 윤종식(이사야)
신부 - 정은영(글라라)
3. 축! 꾸리실로 이수: 심투시가 수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장고(풍물)강습: 매주 일요일 후 3시 30분~성당에서
5. 1인 1단체 가입을 의무화 합니다.
6. 면담을 원하시는 분: 수녀님 - 수요일 후 2시~4시
7. 가정방문 원하시는 분: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8. 사무실 휴무: 26일~27일 * 사무장 피정, 나바위 피정의 집
9. 성령 대회: 25일(월) 전 10시~후 5시, 효자우전성당
10. 애령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 경로잔치: 29일(금) 전 11시, 성당
12. 차주 전례: 해설 - 광명실, 독서 - 나옥현, 김창숙

□ 지난주 봉헌금: 1,195,700원 □ 교무금: 1,512,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환호소리 높음 중에 하느님께서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올라가시도다.

1. 금주 소식: 주님 승천 대축일, 본당의 날
① 미사 - 전 10시 30분 * 저녁미사 없음
② 미사 후 식사 및 한마당 잔치
③ 장소 - 윤호관
 2. 성가연습: 26일(화) 후 8시
 3. 예비신자 교리: 26일(화), 27일(수) 후 8시
 4. 구역(반)장 회의: 27일(수) 후 8시
 5. 금주 미사: ① 29일(금) - 거성그린 ② 6월 5일(금) - 화산2A
 6. 교구 성소국 성소홍보 분당 방문: 30일(토) 후 5시 30분
 7. 차주 모임: 성모회 - 낮미사 후
* 윤반보급 - 광주교구 경동성당(목포)
 8. 청소 봉사: 30일(토) - 바다의 별Pr.
 9. 폐품 정리: 30일(토) - 평화의 모후Pr.
 10. 화단정리: 30일(토) - 정의의 모후Pr.
 11. 금주 전례: 새벽 - 유희정, 낮 - 홍정의, 저녁 - 정인자
 12. 차주 전례: 새벽 - 광순옥, 낮 - 이영순, 저녁 - 이영숙
- 지난주 봉헌금: 955,820원 □ 교무금: 1,085,000원
□ 지난주 신축헌금: 1,055,000원

효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수 녀 원 223-3822 F A X 223-3821 사목회장 임 해 진

○ 오늘: 화산동 성당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키 위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 나눔의 참다운 삶을 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게실 것입니다.

1. 금주 모임: ① 율트레야 - 24일(일) 후 8시
② 꾸리아 - 27일(수) 전 10시
2. 첫영성체 교리공부: 매주 화~금, 후 4시부터
3. 쉬는 교구 가정방문: 28일(목) 후 7시부터
4. 유아세례: 30일(토) 후 4시
5. 신나는 학생미사: 30일(토) 후 4시, 교구 그룹사운드 「창세기」초청
* 모든 중고생의 참여와 부모님들의 관심 바람.
6. 성서교리교실: 매주 화 오전반(11시~12시), 저녁반(8시~9시)
* 바로 알고 바른 행함을 위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자모회 기금 마련을 위한 김밥 판매: 24일(일)
* 많은 협조바랍니다.
8. 서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24일(일), 해성중고
9. 이웃사랑 기금: 10일부터 17일까지 2,215,000원 * 감사합니다.
10.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茶)봉사: 삼익A 구역
11. 주일에 성당에 오실 때는 걸어서 옵시다.

□ 지난주 봉헌금: 1,377,300원 □ 교무금: 2,445,000원

효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서 석 호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영 근
F A X 226-1044 사목회장 박 영 근

○ 성전신축을 위한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소계 - 9,620단 누계 - 875,560단

○ 98 성령강림절 전주교구 성령대회: 25일(월) 전 10시~후 5시

1. 금주 모임: ① 승리의 여왕Cu. - 전 9시
② 서지구 중·고학생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
2. 미납된 신축헌금과 식전대금은 속히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지난주 신축헌금 봉헌액: 13,240,000원(14세대)
4. 폐품수집: 신문, 헌책은 주일날만 수집 * 창고앞에 놓아주세요.
5. 미사시간 안내: 평 일 - 월~금 전 6시
화, 목 주 7시 30분
수, 금 전 10시
토요일전 - 후 3시(어린이미사), 후 7시 30분
주 일 - 전 6시, 9시 10시 30분, 후 7시 30분
6. 차주: 요셉회
7. 금주 전례: 해설 - 이민숙, 독서 - 김영길, 오순자
봉헌 - 유병환, 김성자 부부
8. 차주 전례: 해설 - 김낙환, 독서 - 김영호, 강남주
봉헌 - 정영환, 김성자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30,300원 □ 교무금: 4,207,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쉼정이를 전달합니다!”